

중소기업
수출촉진 간담회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건의서

2019. 2. 22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건의

1.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지원 확대
2. 세분화·전문화된 시장정보 제공
3. 온라인 수출플랫폼의 인콰이어리 정보 신뢰도 제고
4.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지원 확대
5. 신남방 지역중심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6. 중소기업 FTA 활용확대를 위한 원산지증명제도 개선
7.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8. 무역보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① 채수훈 (사)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전무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 지원 확대

□ 건의 배경

- 중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중국 시장 주문 물량 감소를 체감하고 있어 동남아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려는 의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실정

[현장의 목소리]

- # 중국 수출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수출이 줄어들 것 같으며 설비 확장을 보류(A사, 기타기계류 제조업)
- # 고객사의 중국주문이 줄어들어 우리기업도 오더가 줄어들 (B사, 플라스틱 제조업)
- # 미국의 주문기업이 중국 생산을 줄이고 동남아 등지의 생산을 늘리는 추세. 이에 따라 선적 기간이 달라지면서 납기일도 빨라졌음 (C사, 가죽제품제조업)

- 수출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올 상반기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가 가장 우위
 - 동시에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서 한중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

[중기중앙회 설문결과, 2019.1월]

- 2019년 상반기 중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국가 '동남아시아' 36.4% 로 1순위
 - 동남아(36.4), 북미(33.5%), 중국(29.5%), 유럽(22.7%), 일본(16.5%) 순
- 2019년 수출에 영향을 끼칠 가장 큰 대외리스크
 - 중국 등 주요 교역국 내수침체(26.0),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서 한중일 경쟁격화(20.3)

□ 건의사항

- 수출 잠재력이 충분한 중소기업 타깃 시장 (동남아시아)을 중심으로 신흥시장 점유율을 조기에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정보 확충 및 해외마케팅(시장개척단, 수출컨소시엄 등) 지원 대폭 확대

② 바나실아이엔시(주) 박주형 이사

세분화 · 전문적인 시장정보제공

□ 건의배경

- 대부분 중소기업이 해외법인이나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출지원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외진출 전략 수립 불가피
- 수출지원기관의 정보가 개괄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어 품목별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에 한계 존재

[현장의 목소리]

- # 대부분 산업별 개괄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어 당사 취급품목의 판매 및 시장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기 힘들. HS코드별로 시장정보 제공필요 (W사, 공구 제조업)
- # 시장정보의 내용이 두루뭉술하고 제한적이라 타깃시장을 설정하기 힘들 (J사, 의료기기 제조업)
- # 광범위한 시장정보가 아닌 품목중심의 정보 제공필요 (E사,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 # 해외시장정보 제공 서비스가 대부분 유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질도 낮고 일회성이라 해외시장조사가 어려운 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v사, 수지공구 제조업)
- # 두루뭉술한 자료가 아닌 품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시장조사자료 필요 (K사,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 수출타깃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시 수출제품에 필요한 수출국 인증제도나 국가표준 제도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하고 그 자격을 어디서 취득할 수 있는 지도 함께 조사되어야 실제수출준비에 도움이 됨 (H사, 세탁세제제조업)

□ 건의사항

- 현행 시장정보제공 내용을 개괄적 정보만이 아닌 품목별 HS단위 수준의 세부적인 정보로 개선하고
- 품목별 시장점유율, 수입실적, 소비자반응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시장 정보제공 요망

③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온라인 수출 플랫폼의 인콰이어리 정보 신뢰도 제고

□ 건의배경

- 온라인 B2C 수출은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주도, 수출품목수와 수출 국가수도 오프라인 수출보다 다양하고 수출생존율도 높은 등 활성화 바람직
- 중소기업들도 고비즈코리아, 바이코리아 등 온라인 수출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적극 추진중이나 허위 인콰이어리 정보 등으로 온라인 수출플랫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못한 실정

[현장의 목소리]

온라인 수출플랫폼은 긍정적이나 접속하는 바이어에 대한 검증은 더 필요함 (A사 / 섬유직물 및 의복악세서리 제조업)

온라인 수출플랫폼은 허위 발주가 많아 개선이 필요 (B사/철강선 제조업)

인콰이어리 확인시 컨택 바이어의 상세한 기업정보(업체, 규모, 업력, 구매력)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 현재 제공되는 회사명, 담당자만으로는 바이어 파악 불가 (E사/화장품도매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판매가 되지 않음. 유사 품목의 마케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 품목군의 판매율 정도를 피드백 해주면 우리제품의 단가조정에 도움 (I사/생활용품 도매업)

□ 건의사항

- 온라인 수출플랫폼에서 보다 유효한 인콰이어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상세한 바이어 정보 제공 요망
- 해당 바이어의 규모, 업력, 구매실적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바이어 검증을 강화하고 실질적 매출확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④ (주) 에코셋 황우철 상무

중소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 확대

□ 건의배경

-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가장 큰 애로는 ‘비싼 비용’, 인증 취득 이후에도 ‘비싼 유지비’ 는 주된 애로
- 규정변경에 따른 추가인증 요구와 인증 상호 불인정에 따른 국가별 인증 획득 필요성은 다품종 소량생산 중소기업에 특히 불리
- 현행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규모는 실 소요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 다수

[현장의 목소리]

품목당 몇백만원 하는 인증비용을 합치면 몇천만원 수준으로 인증부담이 큼. 현행 제도는 개별기업 품목 수에 비해 지원기회가 부족하며 제출서류가 많아 불편 (C사 화장품 제조업)

해외인증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아 실질적 도움을 받기가 힘들. 수처리기계 관련 미국 현지 인증비용은 6억원에서 11억원까지 소요 (F사 수처리기계 제조업)

EU나 북미시장 소재 바이어의 경우 정말 박한 마진으로 고객의 인증비용은 매우 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추가주문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오히려 손실. 해외인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해외시장에 진출 확률이 높아짐 (D사.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건의사항

- 품목별 인증 획득 비용이 다르므로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수준으로 확대
- 전체 지원예산 규모도 현행 100억원 수준에서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필요

⑤ (주)에이치비글로벌 양대열 대표이사

신남방 지역 중심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

□ 전의배경

- 다품종 소량거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수시 주문건에 대한 신속한 배송은 거래상대방 신뢰 구축에 필수적
- 국가별로 창고를 보유하기 힘든 중소기업에게는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가 큰 도움이 됨
- 2019년 중소기업이 타깃 시장으로 꼽은 신남방지역(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해외공동물류센터가 베트남(호치민) 한 곳만 운영되고 있음

* 2019년 상반기 중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국가 '동남아시아' 36.4% 로 1순위

* 2019년 타깃 신흥시장 '동남아시아' (39.9%)로 1순위

[현장의 목소리]

현지 대리상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 상품의 소량구매를 원하는 소매상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각국에 베이스 캠프 같은 국가지원 물류창고를 두어 상품을 먼저 입고 시킨 후 현지 판매할 수 있는 물류창고 필요 (C사/세제제조업)

국가별로 창고를 보유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공동물류창고 지원은 큰 도움이 됨 (A사/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지역	현재 공동물류센터 운영 무역관		
북미(6)	뉴욕, LA, 시카고, 디트로이트, 벤쿠버, 토론토	유럽(3)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브뤼셀
		동남아(1)	호치민
일본(1)	도쿄	CIS(1)	알마티
대양주(1)	멜버른	중남미(1)	파나마
중국(7)	홍콩,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항저우, 시안	중동(1)	두바이

□ 전의사항

- 신남방지역(동남아시아) 중 현재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지역에 대한 해외공동물류센터 개설

※참고)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

- KOTRA 무역관과 해외전문 물류서비스 기업과의 협력하에 현지 물류 창고이용 지원, 물류컨설팅 제공
- (대상) 현지시장에 판로를 이미 확보하였으나 직수출에 따른 물류비 과다지출, 신속한 납품시스템 부재로 애로가 있는 기업
- (내용) 기간 1년 (기간제 지원), 현지무역관과 제휴된 복수 물류창고 보관 면적 (1년동안 매월 5cbm 또는 10cbm 제공)
- 공동물류센터 운영무역관별(12개국 22개소) 신청비용

* 사업참가비 외 현지전문물류기업과 서비스 계약 후 별도 사용료 지불

지역	공동물류센터 운영 무역관	연간사업참가비
북미(6)	뉴욕, LA, 시카고, 디트로이트, 밴쿠버, 토론토	5cbm : 50만원 10cbm : 100만원
일본(1)	도쿄	
대양주(1)	멜버른	
중국(7)	홍콩	5cbm : 30만원 10cbm : 60만원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항저우, 시안	
유럽(3)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브뤼셀	
동남아(1)	호치민	
CIS(1)	알마티	
중남미(1)	파나마	
중동(1)	두바이	

⑥ [사]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이상훈 팀장

중소기업 FTA 활용확대를 위한 원산지증명제도 개선

□ 건의배경

-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애로를 지적

[중기중앙회 설문결과, 17년, 18년 2년연속]

* 중소기업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점

- ('17년)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50.5%, 1위)
- ('18년)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31.0%, 1위)

-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10종 이상임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세관,상의) 시 필요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인보이스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소명서 입증서류(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 FTA 전담 인력 확보가 곤란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증빙서류준비 부담 때문에 FTA 활용을 주저

[중기중앙회 설문결과, 17년]

* 중소기업 FTA 업무 처리 방식

- 전담인력보유하고 관세사 도움 (43.9%), 전담인력 보유하여 직접처리 (31.5%), 전담인원 없이 관세사 도움으로만 (24.6%)

□ 건의사항

- 기업과의 간담회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여 기업 책임으로 첨부 서류 간소화가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⑦ 대모엔지니어링 김기용 전무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 건의배경

- 수출기업에게 환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거나 환변동보험(무역보험공사)활용 중소기업은 매우 소수*로 상당수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환율 변동에 취약한 상태

* 환변동보험 활용 수출중소기업 271개사 ('18년 기준)

- 중소기업들은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인지하나, 환변동보험의 특성** 및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주저함

** 무역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

- 이에 따라, 일부 수출유관기관은 환변동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예산 때문에 다수 기업이 혜택 받기는 어려움

*** 중소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수출기업이 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에 가입 시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수출유관기관(한국무역협회 등)이 지원해 주는 사업 (업체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 건의사항

- 전반적인 수출 둔화가 우려되므로 단기적으로라도 수출유관기관의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하고
- 수출이 정상 궤도로 회복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료 할인
-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환변동보험이 환리스크 헷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⑧ (주)한영넥스 추윤돈 부장

무역 보험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 전의배경

- 무역 보험 및 보증 전체 인수 규모 중 중소기업 비중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비중과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

중소기업 수출 및 무보의 중소기업 대상 보험·보증 인수 비중 (금액기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소기업 수출비중	17.1%	18.0%	18.3%	20.1%	18.5%
무보의 中企 대상 인수비중	9.3%	10.8%	16.3%	18.1%	19.8%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그러나 아직도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수는 전체 수출 중소 규모 기업체 수 대비 약16%*에 불과, 무역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무역보험 이용 중소기업체 수 : 1.4만개 ('17년,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 중소기업체 수 : 9.4만개 ('18년, 중소벤처기업부)

□ 전의사항

-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 업무 대폭 강화
 - 무역보험법상 설립목적에 '중소기업 지원' 을 명시
 - 중소기업 전용 무역보험 종목 활성화 및 신규 출시
 - 구체적 목표에 대한 집행 및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운영

